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잠정이익 수정에 미치는 영향*

박재환** · 이재윤***

〈요 약〉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840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잠정이익 수정 금액의 변화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회사가 작성하는 잠정이익의 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는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규모와 회계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시행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이후의 기간이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보다는 신외감법의 회계 개혁조치의 효과가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금액은 외부감사 후 확정된 이익과 감사전 재무제표상의 잠정이익의 차이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으로 작성 오류 및 경영자의 재량권이 억제되어 줄어드나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초기에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제도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분석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23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다. 자산규모 1천억 미만인 상장기업은 거래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유지하는 제도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개정과 더불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정의 타당성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효과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잠정이익수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이 논문은 2021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에 지원에 의한 것이며, 공동저자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cau.ac.kr, 주저자

***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yoony0422@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3년 1월 18일 1차수정일 2023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4일

I. 서 론

본 연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실효성을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초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를 위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오류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경영진이 의도한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해 식별된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하여 재무보고 과정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¹⁾

우리나라는 미국의 Sarbanes-Oxley act(SOX)에서 규정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제도를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평가 의무를 2003년부터 외부감사법에 법제화하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전부개정 전인 2017년 10월까지의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audit)가 아닌 검토(review)였다. 신외감법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 및 운용에 대한 미비점도 지적·보완하게 되어 기업의 내부통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기업의 규모별 적용시기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19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이외의 자산총액인 기업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²⁾ 상장기업 자산총액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를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상장법인 자산총액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

자산총액	회계연도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19년부터
5천억 이상 상장법인	2020년부터
1천억 이상 상장법인	2022년부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	현행의 검토수준 유지로 개정 ³⁾

- 1)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2018.6)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및 범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판단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는 시기는 외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전연도 말의 자산총액에 따라 적용된다.
- 3)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기업규모가 작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와 관련된 미비점과 내부통제 환경 구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효과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분석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지만 선행연구들이 재무보고 품질 대용치로 사용한 재량적 발생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후의 재무제표 금액을 사용하므로 회사에서 작성한 정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효과를 살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회사의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제도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여 감사인의 자기검토 위협을 해소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전재무제표상의 이익인 잠정이익은 감사인의 외부감사로 인한 영향이 배제된 회사가 제공한 재무보고 품질만을 살펴볼 수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잠정이익 수정 금액을 사용하여 201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회사가 작성하여 산출하는 재무보고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외감법 도입 여부는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보다는 재무보고 품질개선을 위한 신외감법의 다른 회계개혁의 조치들이 효과를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선행연구 및 가설을 설정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 모형과 표본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2018년 회계개혁법인 신외감법 개정 전,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중대한 취약점 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으므로,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검증 절차 및 위험 수준이

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감사에서 기존의 ‘검토’로 유지하기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2022년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내부통제를 감사인이 문서검사하고 통제를 재수행하는 등의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는 달리 검토는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이 질문 위주로 검증한다.

상대적으로 낮아 감사 의견에 비해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였다.

Verrechia(1983) 및 Louwers(1997)는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이 아닌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감사의견을 제공하는 미국과 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SOX에서 규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hen et al.(2008)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발생액 이익조정이 SOX의 시행 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행 직전 기간에 가장 높았다가 SOX 시행 이후 감소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SOX 도입 후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 감사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하였고, 내부통제제도 감사를 통해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회사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여 이익의 질이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다(Ashbaugh-Skaife et al., 2008 ; Chan et al., 2008 ; Doyle et al., 2007). Feng et al.(2009)은 내부통제제도 도입 후 경영자의 예측공시의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내부통제제도 감사는 정보들의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이익조정 감소와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이 있는 기업에서는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감사인의 감사업무, 감사인의 법적 책임까지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Ettredge et al., 2006 ; Doley et al., 2007 ; Jiang et al., 2010).

우리나라는 2005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현우와 유경연(2006)은 내부회계관리 검토제도 도입 전과 후의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비교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 재량적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강선아와 전성빈(2008)은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 2006년 전과 후로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시행 대상기업인 상장대기업의 유의한 이익조정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손성규 등(2011)은 내부회계관리 검토제도 도입 후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크기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 내부통제제도 운영 및 강화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제한적으로 실시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후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희 등(2022)은 2019년과 2020년으로 세분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인해 감사대상기업의 내부회계담당 인력 수준에 따라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이 억제되는지 분석한 결과, 2019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감사대상기업은 이익조정이 억제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2020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감사제도 도입시기별로 감사대상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최현정(2022)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도입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회계 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으나 실제 이익 조정은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에 감사를 도입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그룹은 실제이익조정이 감소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감사를 도입한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그룹은 실제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도입 시기별로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리 나타났다. 김태중 등(2021)은 제도 도입 시기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표본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19년에 처음 시행되는 초기 단계의 분석표본으로서 운영기간이 짧고,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도 적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기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효과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재량적 발생액이나 실제 이익조정과 같은 재무보고 품질 대용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후의 재무제표 금액을 사용하여 산출하므로 회사에서 작성한 정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2018년 개정된 신외감법은 표준감사시간과 같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오류를 줄이고 경영자의 이익조정행태를 통제하는 제도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재량적발생액과 같은 대용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효과를 살피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2. 잠정이익수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2013년도에 외감법을 개정하면서 회사는 의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여 감사인의 자기검토 위협을 해소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잠정이익이 공시된 이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회사의 최종 이익이 확정공시된다. 이러한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차이가 잠정이익 수정 금액에 해당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효과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보고 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측정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후의 재무제표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되므로 회사에서 산출한 정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과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오류 및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한 적절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손성규 등, 2010; 노준화와 신유진, 2018). 잠정이익 수정 금액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은정 등(2016)은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이 향상되어 효과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하여 재무제표에 존재할 오류·부정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하에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보고의 품질 측정치로 잠정이익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 내부통제 수준이 향상되어 재무제표에 존재할 오류·부정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회사가 작성한 잠정이익 금액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수정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수록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차이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보선 등(2018)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질적 특성이 향상되면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어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잠정이익과 외부감사 후 확정된 이익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인 잠정이익과 외부감사 후 이익의 차이는 내부회계 검토 담당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수록 감사인의 잠정이익의 수정 정도가 감소하여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성규 등(2010)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재량적 발생액, 보수주의, 발생액의 질 등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것은 감사 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장과 외부 감사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잠정이익 수정 정도를 사용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손익구조공시와 같은 잠정이익공시는 회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경영자의 주장을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통제한 결과로써 사외이사의 효과성만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차이의 절댓값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배구조의 핵심요소인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경영자의 재무 보고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회사가 사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잠정이익과 감사후 이익의 차이인 잠정이익 수정은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나타낸다(노준화와 신유진, 2018 ; 박재환과 김진석, 2019). 재무보고 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측정치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산출된 정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오류 및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한 정확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박재환과 김진석(2019)은 잠정이익 수정금액이 작을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가 줄어들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개선되어 경영자와 감사인의 의견불일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 가설설정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통합되어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의견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최현정과 고윤성, 2011) 검토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더욱 밀접히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내부통제수준이 향상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 경영자의 재량권을 억제하고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며 감사의견을 통해 식별된 취약점이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가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Ettredge et al., 2006 ; Doley et al., 2007 ; Cohen et al., 2008 ; Jiang et al., 2010 ; 조현우와 유경연, 2006 ; 강선아와 전성빈, 2008 ; 손성규, 2011). 동 연구는 대다수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제도의 도입 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하지만 재무보고 품질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후의 재무제표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하므로 회사에서 작성하여 산출된 정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과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만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법인 신외감법은 재무보고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신외감법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 경영자의 재량권을 억제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회사의 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제도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여 감사인의 자기검토 위험을 해소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통제나 이사회 독립성 수준 등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보고의 품질 수준인 잠정이익이나 잠정이익 수정에 영향을 미친다(손성규 등, 2010 ; 조은정 등, 2016 ; 신보선 등, 2018 ; 노준화와 신유진, 2018 ; 박재환과 김진석, 2019). 회사가 사전에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잠정이익은 감사인의 외부감사로 인한 영향이 배제되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오류를 방지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를 통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만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법인 신외감법은 재무보고품질 개선을 위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변화는 배제하고 내부회계제도 감사로 인한 회사의 재무보고 품질향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량적발생액과 같은 품질 대용치보다는 잠정이익수정이 분석을 위한 적절한 품질 대용치라 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다. 자산규모 1천억 미만인 상장기업은 거래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유지하는 제도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내부회계관리 감사 제도도 도입되어 3년이 경과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내부통제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켜 경영자의 재량권을 억제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도입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정이익 수정 금액을 사용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시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하여 기업이 작성하는 잠정이익의 수정 정도와 음(-)의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표본

1. 연구모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정이익 수정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다음식 (1)을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DIFF_{it} = \beta_0 + \beta_1 ADOP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FSH_{it} + \beta_6 BIG4_{it} + \sum YEAR_{it} + e_{it} \quad (1)$$

- DIFF : 잠정이익 수정 정도로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금액 차이,
 DIFFNI : (|감사 전 잠정순이익 - 감사 후 확정순이익|)/기초총자산
 DIFFOI : (|감사 전 잠정영업이익 - 감사 후 확정영업이익|)/기초총자산
 ADOPT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연도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자산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총부채/총자산
 GRW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FSH :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BIG4 : 감사인이 BIG4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 정도(DIFF)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손성규 등, 2011 ; 이은철과 박석진, 2015 ; 조은정 등, 2016 ; 신보선 등, 2018 ; 박재환과 김진석, 2019). 구체적으로 수정 금액(DIFF)을 순이익, 영업이익으로 세분화하여 잠정순이익과 확정순이익 차이를 잠정순이익 차이(DIFFNI), 잠정영업이익과 확정영업이익 차이를 잠정영업이익 차이(DIFFOI)로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손성규 등, 2011 ; 조은정 등, 2016 ; 박재환과 김진석, 2019)를 참고하여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변수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성(GRW), 외국인투자자지분율(FSH), 대형 회계법인(BIG4)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ADOPT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자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도입시기별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는 분석을 위해서 자산총액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먼저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그룹의 경우 2019년 이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를 부여한다. 2020년부터 제도가 도입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기업 그룹의 경우 2020년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5천억원 미만인 상장기업 그룹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그룹과 비교를 위하여 적절하게 더미변수 값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도 도입시기가 다른 자산규모 그룹별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상장기업 전체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전체 표본 분석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만 제도가 적용되었던 2019년은 제외하였다. 2019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기 시작한 연도로서 잠재적인 혼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박종일·전규안, 2017). 전체표본 분석시 ADOPT는 2020년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값을 부여하였다.

3. 표본선정

연구의 표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 중 잠정이익을 공시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Kisvalue와 FnGuide의 Dataguide에서 필요한 재무 및 비재무자료를 확보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19년에 최초 도입 시행되어 자산규모별로 적용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효과를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 도입 전인 2016년~2018년 자료를 포함하여 표본 기간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 그룹은 2019년이 제외된 전체 표본 그룹(A),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표본 그룹(B),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표본 그룹(C) 및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표본 그룹(D)으로 나누어진다.

<표 2>는 본 연구의 전체 분석기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표본 선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혼합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만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2019년을 제외한 표본선정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12월 결산기업인 표본으로 한정하였으며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잠정이익과 재무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변수의 극단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연속 변수의 상·하위 1% 수준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최종 표본은 전체에서 2019년을 제외한 표본 6,840개 기업-연도, 2조원 이상 973개 기업-연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494개 기업-연도, 5천억 미만은 5,799개 기업-연도이다.

〈표 2〉 표본 선정 과정

구 분	전체(A) 기업-연도	2조원 이상(B) 기업-연도	5천억원이상 2조원 미만(C) 기업-연도	5천억원 미만(D) 기업-연도
KOSPI 및 KOSDAQ 비금융업 표본	13,044	1,035	1,849	10,160
12월 결산이 아닌 경우	(1,361)	(10)	(47)	(1,304)
잠정이익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3,388)	(42)	(303)	(3,043)
재무 자료가 없는 경우	(29)	(10)	(5)	(14)
전체 표본	8,266	973	1,494	5,799
2019년 제외	(1,426)	0	0	0
최종 표본	6,840	973	1,494	5,799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앞으로 기술되는 전체 표본은 전체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실효성의 잠재적인 혼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도입연도 2019년을 제외한 표본이다. 먼저, 잠정이익 수정 금액 차이(DIFF)인 DIFFNI, DIFFOI의 평균은 각각 0.004, 0.0021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 여부를 나타내는 ADOPT의 평균값은 0.1409로 전체 표본에서 2020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적용한 기업 표본은 약 14%를 차지한다. 통제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는 26.4138, 부채비율(LEV)은 0.4329, 매출액성장률(GRW)은 0.1363, 외국인투자지분율(FSH)은 약 7.3% 보이며, 대형회계법인(BIG4)은 약 42%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량

Variables	N	Mean	Q1	Median	Q3	Std. Dev
DIFFNI	6840	0.0040	0.0000	0.0001	0.0022	0.0119
DIFFOI	6840	0.0021	0.0000	0.0000	0.0008	0.0070
ADOPT	6840	0.1409	0.0000	0.0000	0.0000	0.3480
SIZE	6840	26.4138	24.0193	26.0916	27.2011	1.5132
LEV	6840	0.4329	0.0649	0.4362	0.5854	0.2011
GRW	6840	0.1363	-0.6101	0.0591	0.2078	0.4624
FSH	6840	7.3189	0.0000	2.9043	8.5590	10.5361
BIG4	6840	0.4272	0.0000	0.0000	1.0000	0.4947

DIFF : 잠정이익 수정 정도로 잠정이익과 확정이익의 금액 차이,

DIFFNI : $(\text{감사 전 잠정순이익} - \text{감사 후 확정순이익}) / \text{기초총자산}$

DIFFOI : $(\text{감사 전 잠정영업이익} - \text{감사 후 확정영업이익}) / \text{기초총자산}$

ADOPT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연도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자산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총부채/총자산

GRW : $(\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FSH : 외국인투자자 지분을

BIG4 : 감사인이 BIG4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표 4>는 전체표본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 금액 차이(DIFFNI, DIFFOI)간의 상관관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ADOPT)된 기업일수록 잠정이익 수정 금액 차이(DIFFNI, DIFFOI)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세부표본 그룹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조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ADOPT와 DIFFNI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다.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그룹에서 ADOPT와 DIFFOI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고, 5천억원 미만에서는 ADOPT와 DIFFNI, DIFFOI가 각 5% 수준에서 유의한 양(+)과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은 잠정이익 수정과 대체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Pearson 상관관계

변수	DIFNI	DIFFOI	ADOPT	SIZE	LEV	GRW	FSH	BIG4
DIFNI	1.0000							
DIFFOI	0.4583 ***	1.0000						
ADOPT	-0.0920 ***	-0.0665 ***	1.0000					
SIZE	-0.1890 ***	-0.1356 ***	0.5004 ***	1.0000				
LEV	0.0784 ***	0.0657 ***	0.1606 ***	0.2819 ***	1.0000			
GRW	-0.0224 *	-0.0693 ***	0.0131	-0.0184	-0.0322 ***	1.0000		
FSH	-0.0839 ***	-0.0657 ***	0.1741 ***	0.4710 ***	-0.0679 ***	-0.0058	1.0000	
BIG4	-0.0772 ***	-0.0375 ***	0.1947 ***	0.4598 ***	0.0891 ***	-0.0232 *	0.2817 ***	1.0000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2.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전체 표본(A)을 대상으로 연구 모형(1)을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잠정이익 수정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ADOPT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이면서 2020년 이후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분석결과, 관심변수인 ADOPT의 회귀계수는 DIFNI, DIFFOI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SIZE, GRW는 잠정이익변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LEV변수는 잠정이익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잠정순이익(DIFNI)과 잠정영업이익(DIFFOI)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변수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시기에 따라 분류한 그룹별로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본 그룹별 분석에서 관심변수는 ADOPT 대신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변수인 POST로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5〉 전체—2019년 제외 기업(2016~2021)

$$DIFF_{it} = \beta_0 + \beta_1 ADOP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FSH_{it} + \beta_6 BIG4_{it} + \sum YEAR_{it} + e_{it}$$

변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527*** (<.0001)	0.0248*** (<.0001)
<i>ADOPT</i>	0.0001 (0.7751)	0.00004 (0.8811)
<i>SIZE</i>	-0.0020*** (<.0001)	-0.0009*** (<.0001)
<i>LEV</i>	0.0097*** (<.0001)	0.0048*** (<.0001)
<i>GRW</i>	-0.0008*** (0.0084)	-0.0012*** (<.0001)
<i>FSH</i>	0.00005*** (0.0021)	0.00002* (0.0662)
<i>BIG4</i>	0.0002 (0.4549)	0.0003 (0.1095)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12.72***	9.06***
Adj_R ²	0.0641	0.045
Obs.	6,840	6,840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ADOPT=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아래 <표 6>은 자산 2조원 이상인 표본 그룹(B)에서 제도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비교한 분석 결과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이후인 POST변수와 종속변수인 DIFFNI는 5% 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입시기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2019년 이후 잠정순이익의 수정 금

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산 2조원 이상 기업(2016~2021)

$DIFF_{it} = \beta_0 + \beta_1 POS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FSH_{it} + \beta_6 BIG4_{it} + \sum YEAR_{it} + e_{it}$		
변 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063 (0.2274)	0.0062 (0.2069)
<i>POST</i>	-0.0006** (0.0348)	-0.00001 (0.9704)
<i>SIZE</i>	-0.0002 (0.2697)	-0.0002 (0.2056)
<i>LEV</i>	0.0012 (0.2159)	0.0016* (0.0635)
<i>GRW</i>	0.0015*** (0.0002)	-0.0006 (0.1056)
<i>FSH</i>	-0.00002 (0.1802)	-0.00001 (0.6630)
<i>BIG4</i>	0.0004 (0.439)	0.0009* (0.0901)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1.53**	1.63**
Adj_R ²	0.0245	0.0119
Obs.	973	973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POST=2019년 이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아래 <표 7>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표본 그룹(C)에서 제도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POST의 회귀계수는 DIFFOI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잠정순이익과 잠정영업이익 수정 금액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OST변수와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 금액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내부회계관리제

도 감사의 도입만의 효과인지 아니면 신뢰감법의 여타 개혁조치의 효과인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표본 그룹(D)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POST변수와 종속변수인 잠정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2016~2021)

$DIFF_{it} = \beta_0 + \beta_1 POS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FSH_{it} + \beta_6 BIG4_{it} + \sum YEAR_{it} + e_{it}$		
변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325*** (0.0026)	0.0232** (0.0489)
<i>POST</i>	0.00002 (0.9374)	-0.0005* (0.0901)
<i>SIZE</i>	-0.0011*** (0.0061)	-0.0006 (0.1414)
<i>LEV</i>	0.0017** (0.035)	0.0009 (0.2953)
<i>GRW</i>	0.0004 (0.2936)	-0.0016*** (<.0001)
<i>FSH</i>	-0.00001 (0.5075)	0.000003 (0.8409)
<i>BIG4</i>	0.00002 (0.9595)	-0.0004 (0.2918)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1.62***	3.15***
Adj_R ²	0.016	0.0531
Obs.	1,494	1,494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POST=2020년 이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아래 <표 8>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표본 그룹(D)에 대한 POST변수와 종속변수인 잠정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내

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9년 이후를 “1”로 하는 POST변수를 설정하였다. POST변수는 종속변수인 DIFFNI와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DIFFOI와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자산 5천억원 미만 기업(2016~2021)

$$DIFF_{it} = \beta_0 + \beta_1 POS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FSH_{it} + \beta_6 BIG4_{it} + \sum YEAR_{it} + e_{it}$$

변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983*** (<.0001)	0.0463*** (<.0001)
<i>POST</i>	0.0011*** (0.0033)	-0.0003* (0.098)
<i>SIZE</i>	-0.0039*** (<.0001)	-0.0018*** (<.0001)
<i>LEV</i>	0.0142*** (<.0001)	0.0064*** (<.0001)
<i>GRW</i>	-0.0013*** (0.0011)	-0.0012*** (<.0001)
<i>FSH</i>	0.00004* (0.0982)	0.00002 (0.1115)
<i>BIG4</i>	0.0004 (0.37)	0.0001 (0.605)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12.58***	9.6***
Adj_R ²	0.074	0.056
Obs.	5,799	5,799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POST=2019년 이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앞선 <표 6>과 <표 7>의 분석에서 POST와 잠정이익수정금액이 좀 더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이 잠정이익수정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표본(A)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표 5>에서 관심변수인 ADOPT의 회귀계수는 DIFFNI, DIFFOI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산규모를 나타내는 SIZE변수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수정변수와 유의적인 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 5천억 미만의 표본(D)의 분석결과인 <표 8>에서도 SIZE변수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수정변수와 역시 유의적인 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잠정이익수정금액의 유의적인 감소는 자산규모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이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표 6>과 <표 7>의 POST변수와 잠정이익 수정 금액과의 관계가 좀 더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효과가 아닌 자산규모로 인한 효과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도 자산규모별로 도입되듯이 대다수 회계 및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제도나 개혁조치가 자산 규모별로 규율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산규모와 종속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질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2개년도를 표본 대상으로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표 9>는 전체표본(A) 중 도입연도(2020~2021) 이후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자산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을 ADOPT로 설정하였다. ADOPT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수정 변수와 유의하지 않거나 DIFFOI와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IZE변수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변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보다는 자산규모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을 종합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앞선 <표 6>과 <표 7>의 분석에서 POST와 잠정이익 수정 금액이 좀 더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유의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각 그룹별로 결과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전체표본(A) 중 도입연도(2020~2021) 이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9>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자산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변수와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한 양(+)의 관계까지 보여주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잠정이익수정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표 5> 및 자산 5천억원 미만의 분석 <표 8>과 도입연도 이후 전체표본(2020~2021)에서의 분석인 <표 9>에서 자산규모를 나타내는 변수 SIZE는 잠정이익수정과 일관되게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도입연도 이후 전체표본(2020~2021)

$$DIFF_{it} = \beta_0 + \beta_1 ADOP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GRW_{it} + \beta_5 FSH_{it} + \beta_6 BIG4_{it} + \sum IND_{it} + \sum YEAR_{it} + e_{it}$$

변 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567*** (<.0001)	0.0240*** (<.0001)
<i>ADOPT</i>	-0.0002 (0.8046)	0.00065* (0.0783)
<i>SIZE</i>	-0.0022*** (<.0001)	-0.0009*** (<.0001)
<i>LEV</i>	0.0097*** (<.0001)	0.0040*** (<.0001)
<i>GRW</i>	-0.0004 (0.2662)	-0.0008*** (<.0001)
<i>FSH</i>	0.00010*** (<.0001)	0.00002* (0.0649)
<i>BIG4</i>	-0.0003 (0.5853)	0.0002 (0.4987)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8.01***	5.12***
Adj_R ²	0.086	0.0524
Obs.	3,055	3,055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ADOPT=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외의 변수 정의는 <표 3>과 동일함.

이에 신외감법 효과를 통제하고 자산규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규모와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추가분석

추가분석에 앞서 신외감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개혁법안인 신외감법이 2018년 11월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신외감법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산규모 등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과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신외감법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⁴⁾

구분	내 용	시행시기
주기적 지정제	- 상장회사,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	
표준감사 시간제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적인 감사시간을 정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그룹별로 시행시기 및 표준감사시간 적용 - 상장사(그룹 1~6)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년 시행 - 전체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 7~10) - 코넥스,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 5백억원 이상 2020년 시행 단계적 적용 - 2백억 이상 2021년 시행 단계적 적용	2019.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회계위반 제재강화	- 외부감사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 등 * 회사 : 분식금액 20% 이내, 임직원 : 회사 과징금 10% 이내, 감사인 : 감사보수 5배 이내 ** 10년 이하 징역 등	20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검토 → 감사) - 자산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단계적으로 적용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년 시행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2020년 시행 -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 2022년 시행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연결기준으로 확대 - 자산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단계적으로 적용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23년 시행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2024년 시행 - 전체 상장사 2025년 시행	2019~2023 사업연도 2023~2025 사업연도

4) 금융감독원(2022.12.) 알기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 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산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자산규모가 작은 순서대로 10개 그룹(0~9)으로 분류 후 9로 나누어 조정한 값으로 자산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연속 변수인 *SIZER* 변수를 설정하였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ADOPT*는 2020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고 *POST*는 신뢰감법이 적용되는 시기인 2020년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도 자산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관심변수인 *ADOPT***SIZER*의 효과를 아래의 <표 11>에서 분석하였다. 동 분석결과에서도 여전히 *ADOPT* 변수는 잠정이익수정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SIZER* 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ADOPT***SIZER* 변수는 별다른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⁵⁾

<표 11> 전체-2019년 제외 기업 자산규모 영향 분석(2016~2021)

$$DIFF_{it}(ADJ_{it}) = \beta_0 + \beta_1 ADOPT_{it} + \beta_2 ADOPT * SIZER_{it} + \beta_3 SIZER_{it} + \beta_4 LEV_{it} + \beta_5 GRW_{it} + \beta_6 FSH_{it} + \beta_7 BIGA_{it} + \sum IND_{it} + e_{it}$$

변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037*** (<.0001)	0.0024*** (<.0001)
<i>ADOPT</i>	0.0021 (0.5749)	0.0008 (0.7145)
<i>ADOPT * SIZER</i>	-0.0022 (0.6065)	-0.0008 (0.7372)
<i>SIZER</i>	-0.0095*** (<.0001)	-0.0043*** (<.0001)
<i>LEV</i>	0.0095*** (<.0001)	0.0047*** (<.0001)
<i>GRW</i>	-0.0008*** (0.0095)	-0.0012*** (<.0001)
<i>FSH</i>	0.00003* (0.0732)	0.00001 (0.4027)

5) 지면 관계상 분석에 대한 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자산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외의 신뢰감법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표 5>의 전체표본(A)을 대상으로 신뢰감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0년 이후 기간인 *POST* 더미변수와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1”로 하는 *TREAT*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DID분석을 실시하였다. DID 분석 관심변수인 *TREAT***POST* 변수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수정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감법 도입 이후 기간을 통제한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전과 후는 잠정이익수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전체-2019년 제외 기업 자산규모 영향 분석(2016~2021) (계속)

변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BIG4</i>	0.0002 (0.6207)	0.0003 (0.1534)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13.09***	9.27***
Adj_R ²	0.0676	0.0473
Obs.	6,840	6,840

-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ADOPT=2020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R =자산규모를 작은 순서대로 10개 그룹(0~9)으로 분류 후 9로 나누어 조정한 값 그 외 변수는 <표 3>과 동일함.

전체표본(A)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변수인 ADOPT 대신에 신외감법이 적용되는 기간 변수인 POST변수를 사용한 <표 1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OST 변수는 잠정순이익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잠정영업이익변수인 DIFFOI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SIZER 변수는 <표 11>과 유사한 결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잠정이익 수정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변수인 ADOPT를 사용한 분석과는 달리 POST변수는 잠정영업이익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신외감법의 적용 이후 잠정영업이익의 수정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분석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신외감법에서 담고 있는 여러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자산규모에 따른 회사 지배구조 등의 역할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외감법의 여러 회계개선조치가 작동하여 재무보고의 품질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제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재무보고의 품질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한 최근 외감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6)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한 엄격한 회계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Private Accounting Service(회계자문서비스)가 회계법인의 주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늘어난 PA service도 잠정이익 수정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2〉 전체-2019년 제외 기업 자산규모와 시간 흐름 분석(2016~2021)

$$DIFF_{it}(ADJ_{it}) = \beta_0 + \beta_1 POST_{it} + \beta_2 POST * SIZER_{it} + \beta_3 SIZER_{it} + \beta_4 LEV_{it} + \beta_5 GRW_{it} + \beta_6 FSH_{it} + \beta_7 BIG4_{it} + \sum IND_{it} + e_{it}$$

변수	DIFFNI	DIFFOI
	Coeff (Pr>F)	Coeff (Pr>F)
<i>Intercept</i>	0.0034*** (<.0001)	0.0027*** (<.0001)
<i>POST</i>	0.0007 (0.193)	-0.0008*** (0.011)
<i>POST*SIZER</i>	-0.0003 (0.7374)	0.0006 (0.2095)
<i>SIZER</i>	-0.0094*** (<.0001)	-0.0045*** (<.0001)
<i>LEV</i>	0.0096*** (<.0001)	0.0047*** (<.0001)
<i>GRW</i>	-0.0008*** (0.0087)	-0.0012*** (<.0001)
<i>FSH</i>	0.00003* (0.0685)	0.00001 (0.4874)
<i>BIG4</i>	0.0002 (0.444)	0.0002 (0.3818)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F-value	13.17***	9.5***
Adj_R ²	0.068	0.0485
Obs.	6,840	6,840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POST =2020년 이후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R=자산규모를 작은 순서대로 10개 그룹(0~9)으로 분류 후 9로 나누어 조정한 값 그 외 변수는 <표 3>과 동일함.

V. 결 론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840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잠정이익 수정 금액의 변화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회사가 작성하는 잠정이익의 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는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규모와 회계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시행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이후의 기간이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보다는 신외감법의 회계 개혁조치의 효과가 잠정이익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신외감법의 여러 회계개혁조치가 작동하여 재무보고의 품질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제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재무보고의 품질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한 최근 외감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금액은 외부감사 후 확정된 이익과 감사전 재무제표상의 잠정이익의 차이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으로 작성오류 및 경영자의 재량권이 억제되어 줄어드나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초기에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제도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분석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연구 시에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023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다. 자산규모 1천억 미만인 상장기업은 거래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유지하는 제도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개정과 더불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정의 타당성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효과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 강선아 · 전성빈. 2008.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시행에 따른 이익조정변화 검증”. 회계와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 23-48.
- 김태중 · 유용근 · 이상혁.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30권 제6호 : 141-167.
- 노준화 · 신유진. 2018. “감사인의 특성이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 : 외감법 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0권 제3호 : 85-122.
- 박재환 · 김진석. 2019.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 147-168.
- 박종일 · 전규안. 2017. “재무제표의 사전 제출 의무화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3권 제3호 : 1-40.
- 손성규 · 오윤숙 · 정기위. 20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및 검토의견과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2호 : 103-128.
- 손성규 · 정기위 · 고재민. 2011. “이사회의 독립성, 공시의 적정성, 그리고 시장 반응-손익구조변경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 33-65.
- 신보선 · 한종수 · 신혜정. 201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과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 :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 규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7권 제6호 : 121-155.
- 윤희 · 김응길 · 노희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역할”. 세무와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 125-152.
- 이은철 · 박석진. 2016.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1권 제1호 : 195-238.
- 조은정 · 정주립 · 김범준. 2016. “경영자 능력이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 감사 전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 37-65.
- 조현우 · 유경연. 200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44권 : 119-145.
- 최현정 · 고윤성. 201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재무제표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 연구 제54호 : 535-567.
- 최현정.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회계 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4호 : 843-863.
- Ashbaugh, H and D. W. Collins and W. R. Kinney and R. Lafond. 2008.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and Their Remediation on Accrual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3 : 217-250.

- Cohen, D., A. Dey, and T. Lys. 2008.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Sarbanes Oxley Periods. *The Accounting Review* 83(3) : 757-787.
- Chen, W., and B. Church. 1992. Default on Debt Obligations and the Issuance of Going-concern Opinion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1 : 30-49.
- Doyle, J., W. Ge. and S. McVay. 2007. Determinants of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 193-223.
- Ettredge, M., C. Li, and L. Sun. 2006. The impact of SOX Section 404 internal control quality assessment on audit delay in the SOX Era.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5(2) : 1-23.
- Feng, M., C. Li. and S. McVay. 2010. Internal control and management gu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1) : 40-46.
- Jiang, W., K. Rupley, and J. Wu. 2007.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and Issuance of Going Concern Opinion. Working Paper,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Louwers, T. J., L. A. Ponemon, and R. Radtke. 1997. Examining Accountants' Ethical Behavior : A Review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 : Foundations and Frontiers* : 118-221.
- Verrecchia, R. 1983. Discretionary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5 : 179-194.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udit on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Jae Whan Park** · Jae Yu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udit,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2019.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n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for 6,840 companies from 2016 to 2021, the introduction of changes in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However, the amount of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was found to decrease due to the influence of asset size and period after The External Audit Ac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ined earnings after an external audit and the preliminary earning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efore the audit.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udit may suppress the discretion of managers and reduce the amount of correction, but the corrected amount can change even with the improvement of the auditor's audit quality. Second, sinc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the effective results of the system may not have been derived.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the basis for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udit as well as the validity of system revision.

〈Key words〉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Earnings,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udit, ICF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21 and is a revised version of a part of the Co-author's Master dissertation at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jaypark@cau.ac.kr, First Author

*** Student in Master Program, College of Accounting Department, Chung-Ang University, yoony0422@naver.com, Co-author